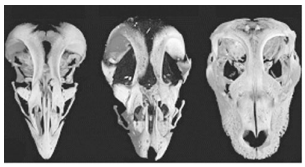
국가별 동향

미 국

예일대, 진화의 비밀을 풀다 '유전자 조작 공룡닭' 만들어



예일대 연구팀이 닭의 배아 속 부리 대신 공룡 벨로키랍토르(Velociraptor)의 코와 유사한 것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연구를 이끈 바라트-안잔 S.불라르 박사는 "연구의 목적은 공룡 닭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오늘날 새의 부리는 공룡의 주둥이가 변화하며 생긴 것"이라며 진화의 비밀을 설명했다. 이들은 현대 조류가 공룡으로부터 진화된 결과를 이론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실행했으며 이를 위해 닭을 이용해 공룡의 코를 재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닭 얼굴의 중간 부분 형성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 2개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디노-치킨(Dino-chickens)'이라고 불리는 이 닭 배아는 CT로 촬용한 두개골 사진에서 공룡과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클리오늘]

계란 없어 유럽서 수입하기로...AI여파

미국 서부 전역에 AI(H5N2) 피해가 심해지면서 미국 농무부가 유럽으로부터 저온살균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내셔널퍼블릭라디오(NPR)은 미국 농무부가 AI피해를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액상계란(껍질 없이 계란액(흰자)만 담은 것)'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가입국가로부터 미국이 계란을 수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널은 미국 중서부 전역에 퍼진 AI로 인해 미국 외식업과 제빵업계도 타격을 받게 됐다며 농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15개 주 내 201 목장에 AI가 퍼져 447만 닭과 칠면조가 폐사됐다. 이 과정에서 계란에 대한 공급이 크게 줄어 액상계란을 주로 소비하는 미국 레스토랑과 제빵업체가 타격을 입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은 미국 외식업계와 제빵업체가 정부에 네덜란드 살균 액상계란을 수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제빵사 연합회는 지난 주 미국 농무부와 의회에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액상계란(껍질 없이 계란액(흰자)만 담은 것)은 미국 외식업체와 제빵업체의 수요가 높은 상품이다. 특히, 액상계란은 계란 흰자액을 일일이 따로 분리하는 부담을 줄여줘 제빵업체의 수요가 고정적인 상품이다. [헤럴드경제]

인 도

철판위로 계란 깨트리니… '병아리'가 3마리나?

계란 후라이, 계란 찜, 볶음밥에까지 광범위하

게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 계란.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계란을 깨트렸는데 병아리가 튀어나온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미디어 매체 로켓24는 인도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어난 마법같은 일을 소개했다. 이 포장마차에서 요리사인 한 남성이 둥근 철판위로 계란을 깨트린다. 첫번째 계란은 철판위로 착지해 계란후라이가 된다. 그런데 두 번째로 깨트린 계란은 다르다. 날 계란이 아닌 병아리가 튀어나온 것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병아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남성이 이러 깨트린 계란 2개에서 모두 병아리가 튀어 나온다. 무려 3마리의 병아리가 계란에서 튀어 나온 것. 이와 관련 매체는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진귀한 광경이라고 전했다. [아시아투데이]

중 국

KFC, '닭다리 8개' 유언비어 퍼뜨린 중국 매체 고소

세계적 외식업체 KFC가 중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사가 다리가 8개인 닭 등 유전자 변형 닭들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현지 업체 3곳을 고소했다. KFC의 모기업 얌브랜드는 이날 자체 중국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선전(深圳) 소재 잉천안즈청궁문화커뮤니케이션과 산시(山西)성에 있는 웨이루쾅테크놀로지, 링뎬테크놀로지를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KFC는 이어 해당 업체들이 현지 모바일 앱 웨이신(微信)의 자사 계정을 통해 가장 널리 퍼뜨린 유언비어로 'KFC가 다리가 8개, 날개는 6개가 달린 유전자 변형 닭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KFC는 해당 업체들에 각각 150만 위안씩의 배상금, 사과, 유언비어 유포 중단을 요구했다. 상하이 쉬후이 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접수했다고 KFC 중국지사 홍보 담당자가 전했다. [뉴시스]

뉴질랜드

날계란 무단 반입하려다 '벌금 폭탄'

온라인에서 산 날계란을 무단 반입하려던 뉴질랜드 여성이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취미로 닭을 기르는 캐런 조앤 레깃(52)은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 받은 날계란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4만5,630 뉴질랜드 달러(3,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레깃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판매자가 이베이에 내놓은 날계란을 사서 영국에 있는 친구 주소로 배달시킨 뒤 친구에게 부탁해 뉴질랜드로 보내도록 했다. 그의 친구는 계란을 다시 포장한 뒤 영국 세관 서류에 '초콜릿 계란'으로 허위 기재해 뉴질랜드로 발송했다. 세 꾸러미로 나뉘어 포장된 계란은 오클랜드국제우편물센터 엑스레이 검사에서 '위험물질'로 적발됐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재판에서 3건의 생물안전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레깃에게 벌금 4만5000 달러와 재판비용 630달러를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양계